

## 강사프로필

❖성명: 박종훈 박사  
(경상남도교육감, 정치학박사)

### 〈주요 학력 및 경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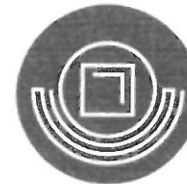
- 1980. 2. 마산고등학교 졸업
- 1984. 2.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(정치학사)
- 1990. 2.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졸업(정치학석사)
- 2001. 8.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졸업(정치학박사)
- 1984. 3. ~ 2002. 9.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
- 2002. 1. ~ 2002. 8.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사립위원장
- 2002. 9. ~ 2010. 8. 제4대, 제5대 경상남도교육위원
- 2005.10. ~ 2006. 8.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
- 2011. 1. ~ 2012.12.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
- 2011. 1. ~ 2012.12.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
- 2004. 4. ~ 2014. 5. 경남교육포럼 상임공동대표
- 2014. 7. ~ 현재 경상남도교육감

### 〈주요 저서〉

- 「박종훈, 도서관에서 길을 나서다」 (2010)
- 「무릎을 굽히면 아이들이 보입니다」 (2014)

연락처: 전화(055)240-6090/팩스(055)240-6091

## 초 청 장



사단법인 함포문화동인회

## 초대합니다

안녕하십니까?

입추가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습니다.  
아직도 덥기는 하지만 지난 여름의 그 한더위를 생각하면 이 정도야  
새발의 피 이지요?

이번 달 영리더스 강좌에는 우리 경남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총괄  
하고 계시는 **박종훈 교육감**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.  
옛날 어른들께서는 집안에 번고가 나서 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빨리  
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은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라  
하셨습니다. 또 60년대초 비로소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 
단기간에 이렇게 세계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한  
민국의 교육의 힘이 있었다는 점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요즘 간간이 '공부 안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'  
라거나 '자기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잘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 
있다'라는 등등의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때의 공부란  
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의  
성공이나 행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을 텐데  
그런 인식이 보편화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.  
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 
박 교육감님께 한번 여쭙어볼 생각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 
생각하시는지요?

2018년 09월 일

(사) 합 포 문 화 동 인 회  
이사장 강 재 현 배상

## 제77회 영리더스 강좌

... 주 제 ...

모든 것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

... 강 사 ...

박 종 훈 박사

(경상남도교육감, 정치학박사)

■ 일 시 : 2018년 09월 15일(토) 오후2시

■ 장 소 : 경남교육청 지혜의바다 도서관 1층 구암홀



9월은 특별강좌로 장소가 변경됩니다.

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/T.055-252-3860